

現代思想과 「릭켈트」

그에 있어서의『산 것』과『죽은 것』[中]

申南澈

그의 歷史哲學에 있어서의 方法的인 優越은 말하자면 그의 哲學에 있어서의『산 것』(다스·레벤디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그의 所謂普遍的인 價値形象의 理論이 廣範히 實證的인 諸科學에 影響하여 一時아카데믹한 學界를 占領하였든 까닭이 아니라, 自然科學과 歷史科學의 區別에 整合을 얻은 理論的 規定을 내린 까닭이다. 自然科學의『法則定立的』인 方法과 歷史科學의『個性記述的』인 方法은 빈델반드와의 켈트에 있어서 처음으로 鮮明히 究明된 것이다. 이 理論은 그를 以後의 歷史乃至文化의 論理學을 云謂하는 學者에 있어서는 한번은 반듯이 問題되어왔다. 設使 그가 이 理論을 採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自己의 學說을 構成하는데에 있어서 于先먼저 批判吟味하였든것이다. 生의 哲學이나 現象學派의 哲學에 있어서 또는 唯物論哲學에 있어서까지도 리켈트의인 法則概念은 立論의 對象이 될 만치 □□잇는 것이다.

그러면 왜 自然科學과 歷史(文化)科學을 區別하는 基準을 그 두 가지 것에 두었든가가 問題일것이다. 멀리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獨逸理想主義를 거쳐 前世紀後半에 이르기까지 實로 無數한 學者가 여러가지 方面으로 科學의 分類를 피해야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大部分이 嚴密한 方法論的인 基礎를 가지지 안헛섯기 때문에, 思想史上에 있어서 그다지 큰 影響的인 類型을 만들 어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科學의 實質的인 發達의 線에 沿하여 그때 그때의 時代的인 特質에 關聯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여하간 우리의 科學史가 보이는 科學分類의 方法에 있어서 리켈트의 哲學은 形式的이라는 非難은 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 □□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一般化하는 것은 自然科學이고 特殊化하는것은 歷史科學이라고하는 師의說을 一層精緻히 論究하여 前者의 概念構成의 限界를 論하고 後者の 價値關係的인 特質을 分明히하여 文化科學의 成立을 導出하였다. 그리하여 在來使用되어온 自然科學과 精神科學의 區別에 對하여 自然科學 及 文化科學의 對立으로써 代置하였다.

이같이 하여 그는 『文化의 哲學』을 세웠다. 그러나 이 文化라는 것은 歷史的社會的으로 形成된 統體的인것이 아닌 것은 勿論, 『生の 哲學』的인것도 아니다. 니체나키엘케골에서 보는바와 같은 生生한 힘과 꼭꼭한 意志의 生을 그에게서 찾아 볼 수는 없다. 潤澤잇는 生은 形式的인 『文化』에 까지 『構成』되고 그리 하여 否定된 形態에 잇어서만 問題되었다. 普遍的인 價値刑賞의 先驗的인 妥當이 文化의 根本問題이었다. 新칸트學派의 興起가 歷史的社會的인 事情에 緣由한다고하면 이 文化의 理論 그것도 벌써 時代의 制約을 免할수는 없는 것이다. 社會的인 諸情勢의 發展과 아울러 이 學派가 生の 哲學的인 諸傾向에 依하여 思想界의 前面에서 後退를 할 수 밖에 없이 된 때, 릭켈트는 『生の 哲學』이라는 著書에 依하여(一九二〇年)自己의 立場을 辯護하며 아울러 生の 哲學을 『流行的인 思潮』라 하여 批判하였다.

이것은 릭켈트의 哲學의 影響이 強하였드니만치 그 反動도 相當히 激烈하였다는것을 말하는 一斷面에 不過하다. 그가 文化科學에 對하여 體系的이고 劃期的인 基礎를 준것은 上述한바와 같거니와 그의 思想의 社會的인 地盤이 生の 哲學的인 方向에 잇는 여러 思想에 依하여 批判되어갈때에 그는 益益 칸트의인 世界觀을 固執하여야갓다. 그뿐 아니라 그는 認識과 그 對象의 問題에 關하여는 칸트 以上으로 形式的 抽象的이었다. 그는 自然科學을 □文化科學으로부터 區別하는데에 잇어서 『歷史的 中心』(히스토리쉐어·젠틀룸)이라는 內容的인 規定을 忘却하지는 안헛지만 그러타고 하드라도 그의 體系의 形式的 抽象性은 悠久히 影響을 줄 수 잇는 思想으로서는 致命的 缺陷이었다. 그의 思想의 『산 것』으로서의 科學分類의 方法도 다른 一面에 잇어서는 同時에 이 形式的 抽象性의 所以로 『죽은 것』(다스·토데)이었다. 그의 思想은 이 『산 것』과 『죽은 것』의 兩頭的 出沒에 依한 特殊한 體系라고 말할 수가 있다. 以下에 그것에 論及하여보라 한다.